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 개발*

서 경 희[†]

서울여자대학교

김 지 현

홍익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내담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10문항), 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3문항), 내담자의 현재 내·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4문항), 상담목표 및 전략(4문항)이라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가 개발되었다.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73~.87이며,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2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이운주(2000)의 사례개념화 평가방식과의 상관을 통해 개발된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 상담경력, 상담성과와의 상관을 통해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는 국내 상담자들이 상담 및 수퍼비전 장면에서 사례개념화를 할 때 어떤 구성요소를 탐색해야 하며, 어떻게 작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담자 교육 과정에서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개발

* 본 논문은 서경희의 2008년도 2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 서경희,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74-12 청호빌딩 5층, 티움인지발달연구소.

Tel : 02-421-3337, E-mail : seohee87@hanmail.net

사례개념화란 내담자의 문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요인들을 가설적으로 검토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전략들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명우, 2004). 상담 및 심리치료 과정 내에서 사례개념화는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원인과 영향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증가시켜 효과적인 개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Haynes, Spain, & Oliveira, 1993). 임상 연구자들에 의하면(Layden et al., 1993; Needleman, 1999), 사례개념화는 내담자에 대한 압도적으로 많은 세부사항들을 상담자가 이해하고 조직하도록 돕는다. 즉, 상담자가 효과적인 개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독특한 내적 처리과정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주고,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행동과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내담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치료에 대한 동기를 증가시키도록 도우며, 치료자에 대한 내담자의 확신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동맹을 향상시켜준다. 결과적으로 사례개념화는 어떤 형태의 상담 및 치료에서든 그 큰 줄기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도록 돕는다(Lister, Auchincloss & Cooper, 1995). 이와 같이 사례개념화는 상담 및 심리치료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사례개념화는 슈퍼비전이나 사례발표 및 연구모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담에서의 사례개념화, 슈퍼비전 영역에서의 사례개념화 교육의 중요성 인식 정도에 비해, 사례개념화 교육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사례개념화의 중요성 인

식이 커져가면서 사례개념화에 관련된 연구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서구에서는 Loganbil과 Stoltenberg(1983)가 상담 및 슈퍼비전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개념화 양식을 소개하였고, Stevens와 Morris(1995) 역시 사례개념화 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Martin 등(1989)은 초보 상담자와 숙련 상담자의 사례개념화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인지도(Cognitive Mapping Task: CMT)를 활용했고, Cummings 등(1990)은 Martin 등(1989)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초보 상담자와 경력 상담자 4명의 자료를 보다 상세하게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김수현(1997)은 정신역동적 접근에서의 사례개념화 방식들 중 일부를 소개하고 평정기간 일치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장재홍(1999) 역시 정신역동적 접근에서의 사례개념화의 하부 영역인 내담자 계획공식화 방법에 의한 심리치료 과정을 분석하였다. 류진혜(1999)는 인지기술을 집단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윤주(2001)는 선행연구들에서 수집한 사례개념화 요소들에 대해 전문 상담자들의 분류 및 정리와 전문 슈퍼바이저들의 타당성 확인 절차를 거쳐서 사례개념화 요소 목록을 개발하였다. 손은정(2001)은 개념도 과제를 사용하여 상담자의 발달수준별로 인지 구조에서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김은혜(2001)는 이윤주의 사례개념화 요소목록을 평가도구로 하여 초급 상담전공자와 자원봉사 상담원들 간 사례개념화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전재영(2001) 역시 이 목록을 평가도구로 하여 상담자들의 개념 수준이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능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명우(2004)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사례개념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렇듯 사례개념화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 주로 관심을 두고 있고, 사례개념화 능력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이명우, 2004). 따라서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을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심홍섭(1998)과 이윤주(2001)에 의해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심홍섭(1998)의 연구에서는 상담자 발달수준의 한 하위영역으로서 사례개념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례개념화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윤주(2001)는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례개념화 요소들을 반영시켜 사례개념화 요소를 탐색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내 상담장면에서 상담자들이 실제로 사례개념화를 할 때 사용하는 요소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계적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요소들 간의 중복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전문가의 평정 매뉴얼만 15장에 이르는 등 평가과정이 복잡하여 현실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정 이론에 편중되지 않고 국내의 상담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사례개념화 구성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보다 활용하기 용이한 척도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사례개념화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이윤주(2001)의 연구를 요소분석의 기본 틀로 하여 경험적 방법으로 사례개념화 구성요소를 탐색

하고 이를 척도화하고자 한다. 즉, 문헌을 통해 수집된 사례개념화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계적 검증 절차를 통해 분류 및 정리해 보고, 실제 상담 및 상담자 교육에서 활용이 용이한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능력의 변화를 평가하여 상담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완성된 사례개념화 평가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윤주(2001) 평가방식과의 관계 및 선행연구에서 상관이 검증된 상담자 발달수준 및 상담경력과의 관계를 밝혀본다.

한편 사례개념화 기술이 중요하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례개념화 기술과 치료 효율성 간의 관계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Eells, Kendjelic, Lucas, 1998). 국외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례개념화 능력과 상담성과 및 상담결과와의 관계에 대해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Morran(1986)의 연구에서는, 가설적 정보에 대한 보고가 높을수록 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내담자 보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의 몇몇 문헌 검토에서도 치료자 개입과 치료결과 사이의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Hess(2000)의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핵심이슈를 제시하는 것이 치료적 동맹, 내담자의 증상, 치료적 변화에 대한 내담자의 용이성, 회기에 대해 내담자가 지각한 깊이에 이로운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Persons와 Tompkins(1997)에 의한 행동적 및 인지-행동적 문헌의 검토에서 개별화된 사례공식화와 치료결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결과들도 좀 더 모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례개념화 연구가 최근에야 시작된 국내에서는 주로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경력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윤주,

2001; 김은혜, 2001)이고 개념화 발달수준과의 관계를 본 연구(손은정, 2001; 전재영, 2001)가 있으며,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이 상담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힌 국내 연구로는 장재홍(1999)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과 상담성과와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과 동시에 상담에서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를 통해 상담자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를 할 때 어떤 요소들을 탐색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작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자 교육 및 슈퍼비전 과정에서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보다 간편하고 활용이 용이한 사례개념화 평가척도가 개발된다면 국내 사례개념화 관련 연구가 더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상담자들이 내담자를 사례개념화 할 때 사용하는 준거개념을 밝혀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상담경력 5년 이상의 상담심리전문가이면서 현재 상담과 슈퍼비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자중 절충주의적 접근을 사용하고 있는 상담

자 20명을 대상으로 문항제작의 기초가 되는 개방적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제작된 예비문항의 1차실시를 위해서는 현재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상담자 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완성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대학상담소와 시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사설 상담소에 있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50부가 배부되어 185부가 회수되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선행 평가방식과의 상관 검증을 위해서는 상담자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39부가 회수되었다. 그중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2명이 제외되어 총 37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완성된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를 바탕으로 사례개념화 능력과 상담성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위의 상담자 185명과 이 상담자들이 현재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 18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측정도구

개방적 질문지

상담 및 슈퍼비전 장면에서 사례개념화에 포함될 요소, 사례개념화 평가방법 및 교육방법,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사례개념화에 제외되고 있는 요소 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로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이 문항을 읽고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개방적 질문지의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당신은 상담을 할 때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사례이해 및 상담목표 설정)를 하기 위해 주로 어떤 질문을 하나요?
- ② 당신은 슈퍼비전을 할 때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주로 어떤 질문을 하나요?

③ 수퍼비전 상황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사례이해와 치료목표를 잘 설정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나요? 즉, 사례개념화를 잘 하고 있는 상담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④ 수퍼비전에서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나요?

⑤ 사례개념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 수퍼비전 상황에서 잘 다루지 않게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로서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되었으며 4개의 하위요인,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1(내담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은 10문항, 요인2(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는 3문항, 요인3(내담자의 현재 내·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4문항, 요인4(상담목표 및 전략)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91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이다.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

심홍섭(1998)이 개발한 척도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대화기술, 알아차리기, 사례이해, 상담계획, 인간적·윤리적 태도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92이다(심홍섭, 1998).

사회적 바람직성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

SDS는 Marlowe & Crowne(1964)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

서는 이 중 13문항으로 된 단축형을 이주일(1988)이 번안한 것을 주로 사용한다. SDS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질문지를 이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의 경우 많은 응답자가 실제 자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을 가지고 편향된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척도는 응답자의 그런 경향성을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사례개념화 작업용지 및 평정매뉴얼

상담자들이 사례개념화를 하도록 하는 작업용지는 연구에 대한 개요와 사례개념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사례개념화 작업의 방법과 절차를 설명한 뒤, 모의사례를 제시하고 상담자가 자유롭게 사례개념화 내용을 작성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때 제시된 모의사례는 이명우(2004)의 연구에서 사례개념화 평가를 위해 사용된 사례를 사용하였다.

상담자들이 작성한 사례개념화 내용의 수준을 평정하기 위해 이윤주(2001)의 연구에서 개발된 사례개념화 요소목록을 활용하였다. 이윤주(2001)는 국내외 사례개념화 관련 연구물을 검토하여 8개 유목과 27개의 하위요소들로 구성된 사례개념화 요소목록을 개발하였다. 8개 유목에는 현재 문제 및 관련증상, 문제관련 역사적 배경,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개인적 요인, 문제관련 내담자의 외적(상황적)요인,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 내담자의 자원 및 취약성, 종합적 이해, 상담목표 및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점수부여를 위해 마련된 평정매뉴얼에는 먼저 27개의 요소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고, 다음으로 평정자의 주의사항과 점수부여 기준, 전문가 평정지침 및 평정용지가 제시되어 있다.

상담성과 질문지

정남운(1998)의 상담성과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상담자용 9문항, 내담자용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Cronbach's α 계수는 내담자용이 .86, 상담자용이 .92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 개발을 위해 우선 상담 및 수퍼비전 경력이 있는 상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방적 설문을 실시하였고, 상담경력 10년 이상의 상담심리전문가로 구성된 2인의 분류자들이 설문내용을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2명의 분류자들에게 사례개념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개방적 질문지의 응답내용들을 각자 유사한 영역으로 분류하게 한 뒤 유목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며 적절하게 분류되었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 결과, 크게 내담자의 문제, 발달력 및 과거력, 현재생활, 상담목표 및 개입전략, 상담관계, 내담자의 내·외적 환경으로 유목화해 볼 수 있었다. 이를 이운주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요소 및 유목의 명칭은 서로 다르나 내용면에서 유사점이 있었다. 즉, 내담자의 문제는 이운주의 현재문제 및 관련증상, 문제와 내담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유사하고, 발달력 및 과거력은 이운주의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과 유사하며, 현재생활은 이운주의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개인적 요인, 내담자의 대인관계특성과 유사하고, 상담목표 및 개입전략은 이운주의 상담목표 및 계획과 유사하며, 내담자의 내·외적 환경은 이운주의 문제 관련 내담자의 외적요인, 내담자의 자원 및 취약성과 유사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운

주의 결과와 달리 상담자들이 사례개념화를 할 때 상담관계 및 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구자가 사례개념화 관련 선행연구 및 개방적 질문지 결과들로부터 분류된 영역에 해당하는 예비문항들을 수집 및 제작하여 총 48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제작된 48개의 예비문항을 1차로 선별해내고 이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우선 검증하기 위해 현재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상담자 23명에게 예비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를 1차 예비실시하였다. 척도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담심리전문가로 구성된 3인의 평정자들이 예비문항 내용을 검토하면서 문항의 적절성에 대해 평정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문항을 제외시켰다. 1차 예비실시와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7문항이 제외되어 총 41문항으로 구성된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 예비문항을 다양한 경력의 상담자 185명에게 실시하여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문항 선정기준으로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간 상관 및 문항-총점간 상관, 다중공선성을 고려되었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최종문항이 선정되었다.

완성된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운주(2001) 평가방식과의 상관,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상관이 입증된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 상담경력(현재까지의 상담경험 총개월 수, 현재까지의 상담사례 수) 및 상담성과와의 상관을 조사하였다. 상담성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담이 5회기 이상 진행된 상담자와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이

때 상담자는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와 상담성과 설문지에 응답을 하고, 내담자는 상담성과 질문지에 응답을 하였다. 또한 자기보고식 척도의 한계인 사회적 바람직성의 개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윤주 평가방식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상담자들에게 사례개념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모의사례를 제시하고 그 사례에 대해 사례개념화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록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 21문항에 대해 응답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하였다. 상담자들이 모의사례에 대해 사례개념화한 내용은 상담경력 10년 이상의 상담심리전문가로 구성된 2인의 평정자들이 그 내용을 1,2차로 평정하여 점수화 하였다. 즉, 1차 평정에서는 응답자의 사례개념화 내용 중 27개 요소들이 얼마나 해당되는지를, 2차 평정에서는 해당된 요소의 내용이 질적으로 우수한 정도에 따라 가산점을 주어 전체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평정자들은 평정에 앞서 사례개념화 요소목록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주어진 모의사례에 대해 각자 내담자를 사례개념화 해보도록 하여 사례에 대해 숙지를 하였으며, 연습용 평정기록지를 통해 평정연습을 하였다. 그 결과 두 명의 평정자들간의 점수 상관관계는 $.87(p < .01)$ 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21문항)를 배부하고 2주후에 다시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최종문항 선정

1차로 선별된 41문항의 문항분석 결과 평균은 4.71~5.80에 분포하였고, 표준편차는 .75~1.16에 분포하였다. 문항간 상관관계는 .11~.47에 분포하였으며, 문항-총점간 상관관계는 .43~.75에 분포하였다. 다중공선성 검토를 위해 Tolerance와 VIF를 살펴본 결과, Tolerance는 .25~.60에 분포하여 .25이상의 기준에 부합되었으며, VIF도 1.66~3.92에 분포하여 4.0이하의 기준(이상균, 2002)에 부합되었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제거되는 문항이 없어 41개 문항 전체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eigenvalue) 1.0이 넘는 요인의 수가 8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scree plot과 요인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또한 각 요인에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공통분(communality)과 요인부하량이 .3 이상이면서 다른 요인들과 이중으로 부하량이 겹치지 않는 문항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 결과 20개의 문항이 제외되어 총 21문항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가 완성되었다.

요인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분해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회전방식으로는 하위요인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사각회전(Direct Oblimin)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요인(내담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10문항, 2요인(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 3문항, 3요인(내담자의 현재 내·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 4문항, 4요인(상담목표

및 전략) 4문항으로 총 4요인 21문항이 추출 요인 2는 고유치 1.705에서 전체 변량의 8.121
 되었고 요인구조 행렬표는 표 1과 같다. 요인1 %를, 요인3은 고유치 1.405에서 전체 변량의
 은 고유치 8.018에서 전체 변량의 38.181%를, 6.689%를, 요인4는 고유치 1.072에서 전체 변

표 1.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의 요인구조 행렬표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10 상담자의 감정으로부터 내담자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치료에 활용 할 수 있다.	.713	.077	-.035	-.019
8 내담자의 정서, 사고, 행동을 연결해서 볼 수 있다.	.676	-.020	-.099	-.061
11 내담자의 핵심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	.660	.045	-.055	-.183
1 내담자가 처한 문제 상황에서 내담자의 생각, 감정, 행동 및 타인의 반응을 탐색한다.	.577	.014	.100	-.122
15 내담자의 어린 시절 주된 감정양식을 알고 있다.	.554	.037	-.078	-.034
29 상담자가 자신의 사례개념화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527	.026	-.221	-.164
3 상담 중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을 알고 있다.	.454	-.124	-.160	.236
36 호소문제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탐색한다.	.439	-.190	-.061	-.080
6 내담자가 상담에서 다루고 싶어 하는 문제를 탐색한다.	.390	-.282	.113	-.135
17 내담자가 현 시점에서 상담하게 된 계기를 알고 있다.	.329	-.175	-.204	-.136
37 내담자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긍정적이다.	-.024	-.993	.077	.013
38 내담자를 부분적인 것이 아닌 전체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118	-.585	-.197	-.044
34 상담진행 과정에서 내담자의 긍정적 경험, 성공경험에 초점을 둔다.	-.116	-.412	-.219	-.158
31 현재 내담자의 주된 감정과 정서상태를 알고 있다.	.189	.008	-.771	.025
32 치료에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는 내담자의 환경들을 알고 있다.	-.082	-.027	-.709	-.221
33 내담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200	-.049	-.509	-.038
35 치료에 방해가 되는 상담자 특징을 알고 있다.	.112	-.189	-.411	.143
16 상담목표 설정 및 개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187	.007	-.036	-.630
20 단기와 장기 목표를 구분하여 세울 수 있다.	.159	.040	-.282	-.578
5 상담목표를 수립하고 전략을 세운다.	.071	-.191	.003	-.549
24 치료기간을 고려하여 치료계획을 설정한다.	.149	-.095	-.033	-.476
고유값	8.018	1.705	1.405	1.072
설명변량(%)	38.181	8.121	6.689	5.104
누적설명변량(%)	38.181	46.302	52.991	58.095

표 2.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의 요인간 상관관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내담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요인2(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	.43**		
요인3(내담자의 현재 내·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	.57**	.47**	
요인4(상담목표 및 전략)	.64**	.44**	.39**

량의 5.104%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들 4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에 대해 58.09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요인 중 내담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관련되고 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는 내담자를 바라보는 상담자의 시각과 관련되며, 내담자의 현재 내·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둘러싼 주변 상황을 상담자가 인식하고 있는 정도와 관련되고, 상담목표 및 전략은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 및 치료계획과 관련된다. 4개의 요인들은 각 요인의 의미 및 요인부하량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표 2의 하위척도들간의 상관관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요인들로 구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21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가 .91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각각 요인 1이 .87, 요인2가 .73, 요인 3이 .78, 요인 4가 .79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담자 37명을 대상으로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를 2

주 간격으로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 한 결과, .90($p < .01$)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타당도 및 준거타당도

최종적으로 완성된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선행 연구된 이윤주(2001) 평가방식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35($p < .05$)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각 하위요인들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또한,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담자 발달수준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역시 .68($p < .01$)로 나타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표 4). 완성된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 21문항과 상담자의 상담경력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또한 .35($p < .01$)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표 5).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과 상담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 상담자가 보고한 상담성과와는 .56($p < .01$)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나, 내담자가 보고한 상담성과와는 .11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자기보고식 척도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개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19($p < .01$)로 다소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기평가 척도와 선행 평가방식과의 상관관계

	요인 1 (내담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요인 2 (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	요인3 (내담자의 현재 내·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	요인 4 (상담목표 및 전략)	총점
선행 평가방식	.43**	.18	.19	.25	.35*

*p<.05, **p<.01

표 4.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기평가 척도와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와의 상관관계

	요인 1 (내담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요인 2 (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	요인3 (내담자의 현재 내·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	요인 4 (상담목표 및 전략)	총점
상담자 대화기술	.52**	.42**	.47**	.42**	.58**
사례이해	.65**	.47**	.55**	.52**	.71**
알아차리기	.62**	.41**	.56**	.42**	.65**
상담계획	.47**	.45**	.46**	.54**	.59**
윤리태도	.41**	.56**	.39**	.33**	.51**
상담자 발달수준 총점	.59**	.51**	.54**	.50**	.68**

**p<.01

표 5.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기평가 척도와 상담경력과의 상관관계

	요인 1 (내담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요인 2 (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	요인3 (내담자의 현재 내·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	요인 4 (상담목표 및 전략)	총점
상담경력	.39**	.09	.32**	.21**	.35**
상담 사례수	.07	-.10	.07	.07	.06

**p<.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능력을 자기평가 할 수 있는 사례개념화 평가척도

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심리전문가 20 명에게 상담 및 슈퍼비전 상황에서 사례개념 화에 관한 개방적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응답 내용을 2명의 상담심리전문가들이 평정, 분류

하였다. 그 결과 내담자의 문제, 발달력 및 과거력, 현재 생활, 상담목표 및 개입전략, 상담관계, 내담자의 내·외적 환경이라는 6가지 유목으로 분류된 사례개념화 구성요소를 추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예비문항(48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사례개념화 구성요소를 이론적 틀이 되는 이윤주(2001)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담관계”라는 요인이 다소 차별화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담관계, 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각, 내담자에 대한 공감, 전이의 활용, 상담자의 인간관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상담심리전문가들은 사례개념화를 할 때 상담자의 기본적인 인간관과 태도, 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 및 내담자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 요인을 사례개념화 구성요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례개념화 평가척도를 사용하는 상담자와 연구자들의 이론적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 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 요인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6가지 유목에 기초하여 개발된 예비문항을 23명의 상담자에게 1차로 예비조사하고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문항을 수정, 제거한 뒤 41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41문항의 예비척도를 185명의 상담자에게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20문항이 제외되어 4요인,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최종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를 완성하였다. 4요인은 각각 내담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 내담자의 현재 내·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 상담목표 및 전략으로 명칭 하였다. 초기의 6개 유목이 4개 요인으로 축소되었으나, 이는 각 유목들이 특정내용만을 반영하기보다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연구과정에서 유사한 것들이 통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초기 유목 중 내담자 문제, 발달력 및 과거력은 내담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요인에 포함되었고, 현재 생활과 내담자의 내·외적 환경이 내담자의 현재 내·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요인으로 포함되어졌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21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가 .91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주 간격으로 실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 역시 .90으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도 비교적 안정된 결과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완성된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선행 연구된 이윤주(2001) 평가방식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35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 중에서는 내담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요인이 .43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두 평가 방식간의 상관이 유의미하나 계수가 기대만큼 높지는 않았다. 그 이유로는 우선 사례개념화 항목을 구하는 방식에서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윤주는 서구와 국내의 문헌연구들을 토대로 사례개념화의 항목을 구하였고, 본 연구는 국내 상담자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항목을 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큰 변량을 차지하는 상담자 인간관 및 태도 요인은 이윤주 연구의 요소목록에서는 없는 요인으로 두 평가 도구에서는 구성요인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윤주 연구의 경우 사례개념화에 관한 문헌자료들을

상담자 및 슈퍼바이저들이 분류, 정리하고 전문 슈퍼바이저들이 그 유목의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로서 요인 분류가 통계적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뢰도 등 측정도구로서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윤주의 도구가 과연 사례개념화를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끝으로 두 척도간에는 평정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다. 즉, 본 척도는 자가평정 방식이고 선행연구는 평정자들이 평정하는 방식이다. McNeil 등(1992)에 의하면 상담자가 자가평가한 상담자 발달수준은 슈퍼바이저가 평가한 발달수준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심홍섭, 1998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이러한 평가방식에서의 차이가 상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처럼 두 척도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나 계수가 기대한 만큼 높지 않았던 원인에는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구인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측정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실시되어 타당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상담자 발달수준척도, 상담경력, 상담성과와의 상관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과 발달수준척도와의 상관은 .68로 나타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사례개념화 능력은 상담자 발달수준의 한 하위영역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상담자 발달수준과 상관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이 발달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도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표 4의 결과처럼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에서 사례이해와 상담계획은 본 척도와 유사한 요

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척도는 사례개념화 자체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 내담자 문제 및 주변환경에 대한 이해와 상담목표 및 전략이라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포함하고 있다. 또한 완성된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 21문항과 상담자의 상담경력은 .35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윤주(2002)는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경력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수행수준이 상담경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상담경력과의 상관에서 “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 요인은 상담경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류진혜(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데, 류진혜는 초심, 중간수준, 숙련 상담자 각 12명을 대상으로 상담자 경력수준과 관계형성 기술, 인지기술, 문제해결 기술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관계형성 기술은 상담자 경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인지기술과 문제해결 기술은 상담자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이미 인간에 대한 공통적인 가치관을 형성한 개인들이 상담직에 입문하기 때문에 상담자 훈련이 상담자의 고유한 가치관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과 상담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담자가 보고한 상담성과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나, 내담자가 보고한 성과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사례개념화 능력이 높은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상담성과에 대한 방향성과 기대가 뚜렷할 수 있는 반면, 내담자는 상담과정에서

사례개념화한 내용을 같이 작업하지 않는 이상 상담자와 상담성과의 방향과 기대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Eells(1997)에 의하면 훌륭한 사례 공식화의 한가지 기능은 공식화에 의해 제공된 이해를 통해 치료자가 내담자에 대한 공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Hess(2000)의 연구결과 내담자의 핵심이슈를 제시하는 것이 치료적 동맹, 내담자의 증상, 치료적 변화에 대한 내담자의 용이성, 회기에 대해 내담자가 지각한 깊이에 이로운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다만, 내담자의 회기내 및 치료후 반응을 질적분석한 결과 참가자들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수용과 참여의 정도가 치료적 동맹, 회기 깊이와 각성, 증상감소와 정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이 상담과정 중에 내담자의 상담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담자에 대해 이해하고 목표와 전략을 잘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개념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내담자가 어떻게 수용했느냐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상담효과란 상담자와 내담자의 의도 및 행동 그 자체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대방이 어느 정도 올바르게 파악하여 후속 인지작업과 행동표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인 만큼(Martin, 1984), 상담효과란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인간 해석능력과 의사소통 기술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정찬석, 2005). 따라서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이 내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내담자 내부의 어떤 작용을 거쳐 상담성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서 내담자 상담성도가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중 측정되었는데, Hess(2000)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내담자가 이를 직면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일어난다면 일시적으로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성도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사례개념화 과정이 상담의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담자 개입의 효과가 궁극적으로 내담자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성과 측정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자가평가 척도 개발을 위해 상담 경력 5년 이상의 상담심리전문가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상담 현실을 반영한 사례개념화 구성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척도화 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커트 형식의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상담자 스스로 자가평가하거나 슈퍼바이저들이 평가할 수도 있어 보다 쉽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 척도의 개발은 상담 교육장면에서 사례개념화와 관련하여 어떤 요소를 인식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안하고 상담자 발달 정도를 평가하며, 실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의 사례이해 정도 및 개입의 적절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상담자의 자가평가와 슈퍼바이저 평가에 대한 추후 연구와 함께 슈퍼바이저가 평가한 사례개념화 능력과 내담자 상담성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슈퍼바이저들이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의 사례개념화 관련 연구를 촉진시키고 사례개념화 연구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끝으로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과 상담성도와의 관계를 밝힘으로서

사례개념화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상담성과에 영향을 주는 한 변인으로서 사례개념화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사례개념화 평가척도의 제작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나 보다 철저한 통계절차에 따라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상담자들을 표집하고, 다른 상담자 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과 상담성과와의 관계만을 살펴보았으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과 상담자의 상담성과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나 내담자의 상담성과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따라서 사례개념화 능력이 내담자에게 어떤 과정으로 전달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석을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이 척도는 상담자 사례개념화 능력에 대한 상담자의 자기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므로 측정결과가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향후 이 척도 문항들이 수퍼바이저의 수퍼바이저 사례개념화 능력 측정에 효용성을 가지는지를 탐색하여 상담자 사례개념화 측정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 요인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사례개념화 구성요소에서 제외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상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 요인에 대해 사례개

념화와 관련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계현, 이윤주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 김수현 (1997). 정신역동적 사례공식화: 계획공식화 방법과 개별적 갈등공식화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129-155.
- 김은혜 (2001). 초보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수준에 관한 연구: 상담전공생과 전화상담 자원봉사자간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진혜 (1999). 상담자 교육을 위한 인지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수정 (1999).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상담자의 경력수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은정 (2001). 상담자 발달수준별 사례개념화의 차이: 개념도를 통한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명우 (2004). 상담사례개념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명우 (2005). 사례개념화 교육을 위한 상담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 탐색 연구. 한국

-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277-296.
- 이상균 (2002). 회귀분석. 미간행.
- 이순목 (1995). 요인분석 I. 서울: 학지사.
- 이윤주 (2001). 상담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윤주 (2001). 상담사례개념화 요소 내용분석.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학생생활연구, 6, 83-101.
- 이윤주 (2001). 상담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수퍼비전에서 중요하게 지각되는 사례개념화 요소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79-93.
- 이주일 (1988).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재홍 (1999). 계획공식화 방법에 의한 심리치료 과정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재영 (2001). 상담자의 개념화 발달수준과 사례개념화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남운 (1998). 상담과정에서의 대인관계적 상호성과 상담성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찬석 (2005).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의 도움 측면 탐색연구 -개념도 방법론을 통한 상담자와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Cummings, A. L., Hallberg, E. T., Martin, J., Slemmon, A., & Hiebert, B. (1990). Implications of counselor conceptualizations for counselor educ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0, 120-134.
- Eells, T. D. (1997).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 History and current status. In T. D. Eells(Ed.), *Handbook of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pp.1-25). New York: Guilford Press.
- Eells, T. D., Kendjelic, E. M., & Lucas, C. P. (1998). What's in s case formulation? Development and use of a content coding manual. *Journal of Psychotherapy Practice and Research*, 7, 144-153.
- Eells, T. D., & Lombart, K. G. (2003). Case formulation and treatment concepts among novice, experienced, and expert cognitive-behavioral and psychodynamic therapists. *Psychotherapy Research*, 13, 187-204.
- Eells, T. D., Lombart, K. G., Kendjelic, E. M., Turner, L. C., & Lucas, C. P. (2005). The quality of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 A comparison of expert, experienced, and novice cognitive behavioral and psychodynamic therapis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4), 579-589.
- Haynes, S. N., Spain, E. H., & Oliveria, J. (1993). Identifying causal relationships in clinical assess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5, 281-291.
- Hess, S. M. (2000). *The effects of a case formulation on process and outcome in the treatment of depression*. dissertation thesis(Ph.D.),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Hillerbrand, E. (1989).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experts and novices: Implications for group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67, 293-296.
- Holloway, E. L., & Wolleat, P. L. (1980).

- Relationship of counselor conceptual level to clinical hypothesis form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539-545.
- Holloway, E. L. (1988). Instruction beyond the facilitative condion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7, 252-257.
- Layden, M., Newman, C., Freeman, A., & Morse, S. (1993). *Cognitive therap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Lister, E. G., Auchincloss, E. L., & Cooper, A. M. (1995). *The psychodynamic formulation. Psychodynamic Concepts in General Psychiatry*. Eds. Schwartz, J. H., Bleiberg, E., & Weissman, S. H.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s.
-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 3-42.
- Loganbill, C., & Stoltenberg, C. (1983). The case conceptualization format: A training device for practicum.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2, 235-241.
- Martin, J., Slemon, A. G., Hiebert, B., Hallberg, E. T., & Cummings, A. L. (1989). Conceptualizations of novice and experienced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4), 395-400.
- Matarazzo, R. G., & Patterson, D. R. (1986). Methods of teaching therapeutic skill. In S. L. Garfield & A. E. Bergin(Ed.).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An empirical analysis*. New York: Wiley.
- Meier, S. T. (1999). Training the practitioner-scientist: Bridging case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7, 846-869.
- Morran, D. K. (1986). Relationship of counselor self-talk and hypothesis formulation to performance lev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4), 395-400.
- Murdock, N. L. (1991). Case conceptualization: Applying theory to individual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0, 355-365.
- Needleman, L. D. (1999). *Cognitive case conceptualization: A guidebook for practitioners*. London: Erlbaum.
- Orliss, M. J., Neufeldt, S. A., Pinterits, E. J., Moleiro, C. M., Lee, T. E., Yang, P. H., & Brodie, R. E. (2006). How do graduate student therapists incorporate diversity factors in case conceptualizat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3, 464-479.
- Persons, J. B. & Tompkins, M. A. (1997). Cognitive-behavioral case formulation. In T. D. Eells(Ed.), *Handbook of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pp.314-339). New York: Guilford.
- Persons, J. B., Roberts, N. A., Zalecki, C. A., & Brechwald, W. A. G. (2006). Naturalistic outcome of case formulation-driven cognitive-behavior therapy for anxious depressed outpati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1041-1051.
- Stevens, M. J., & Morris, S. J. (1995). A format for case conceptualiz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5(1), 82-94.

원 고 접 수 일 : 2008. 6. 5

수정원고접수일 : 2008. 7. 14

게 재 결 정 일 : 2008. 8. 8

Development of Self-Report Case Conceptualization Scale

Kyoung Hee Seo

Seoul Women's University

Ji Hyun Kim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measurement to assess our ability to conceptualize a counseling case. Through factor analysis, a 21-item case conceptualization scale was completed, and 4 factors were identified. These we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lients' problems (10 items), the attitude and viewpoint of the counselor (3 items), counselor's awareness of clients' current inner and external situation (4 items), and the goals and strategies needed to be employed (4 items). The inner consistency reliability coefficient ranged from .73 to .87, and the overall inner consistency reliability coefficient was .91. The test-retest was separated by 2 weeks and it showed good reliability with a Cronbach α of .90. Correlation analysis with Lee's assessment method (2000) was run to test 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newly developed measurement. Furthermore, correlation analysis with a Counselor Developmental Level Questionnaire, counselor's career, and counseling outcome was run to test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It seems that the newly developed Case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Scale could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to the counseling and supervision field on how and what should be explored. Moreover, it could be used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counselor's case conceptualization abilities.

Key words : case conceptualization, self-report, scale